

고어헤드 신학교

GOAHEAD THEOLOGICAL SEMINARY



예수

JESUS

**9 East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수(히브리어: ישוע, 예수, 히브리어: יהושע, 예슈아, 고대 그리스어: Ἰησοῦς 이에수스, 기원전 4년경 ~ 기원후 33년경)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야소 등 다양한 이름과 칭호로 불리며, 서기 1세기 갈릴래아의 나자렛 출신 유대인 설교자이며 종교 지도자로서 기독교 창시자이며 신앙의 대상이다. 세계 최대 종교인 기독교의 중심 인물로,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는 예수를 야훼의 아들이라는 성육신이자,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그리스도)로 믿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고대 역사학자들은 예수의 역사적 실존을 인정한다.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신약성경의 4대 정경 복음서에 주로 담겨 있다.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과 예수의 실제 모습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다양한데,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 이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과 더불어 성경에 묘사된 예수가 역사적 예수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복음서에 묘사된 것에 의하면, 예수는 8일째에 할례를 받았으며, 젊은 시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후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 자신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다. 이후 율법을 신적 권위로 해석한 떠돌이 교사로 활동하였는데 종종 랍비로 불렸다. 예수는 야훼를 따르는 방식에 대해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병자를 치유하며, 비유로 가르치고, 제자들을 모았다. 특히 열두 제자를 그의 사도로 임명했다. 이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은 후 로마 정부에 넘겨졌

고, 유대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명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다. 예수의 죽음 이후, 그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의 승천 이후 제자들이 형성한 공동체는 초기 기독교 교회로 발전했다. 이 공동체는 전 세계로 확장되어 현재의 기독교로 성장했다. 예수의 가르침과 생애에 대한 기록은 초기에는 구전 전승으로 보존되었는데, 이것이 복음서의 서면 기록의 기반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는 예수가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며, 기적을 행하고 기독교 교회를 세웠으며,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었다는 기독교 신학을 따른다. 또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했으며, 하늘에서 다시 돌아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믿으며, 니케아 신경에서는 예수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그의 재림과 관련된 기독교 종말론과 연결된다. 기독교 신앙에서 대다수는 예수를 삼위일체의 제2위격인 성자로서 숭배한다. 예수의 탄생은 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기념되며, 그의 십자가형은 성금요일에, 그의 부활은 부활절 일요일에 기념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달력 체계인 서력 기원은 예수의 대략적인 탄생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예수의 권위

유대교의 랍비: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자신만의 공생애를 시작했다. 예수는 구전 복음을 전했으며 "랍비"라고 자주 불렸다. 예수는 신을 청종하는 방법에 대해 유대인들과 토론했고 비화를 가르쳤으며 지지자들을 모았다. 예수는 산헤드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로마 정부에 인도되어 유대인 군중이 거세게 압박하는 가운데 유대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명령으로 십자가형을 당했다. 예수의 죽음 이후 예수의 지지자들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믿었고 지지자들이 형성한 공동체는 초기 기독교가 되었다.

기독교의 신:

기독교는 "예수는 성자이자 동정녀 성모 마리아에서 나왔고, 기적을 행하는 동시에 교회를 창립해 인간을 구원하며,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간 뒤 언젠가 재림할 것"을 교리로 삼고 있다. 니케아 신경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이후에도 삶과 죽음을 판단한다고 믿고 있다. 기독교는 예수를 신이자 인간인 동시에 신의 아들인 존재로 믿고 삼위일체 중 제2위격인 성자로 보고 있다.

서구권 달력의 기원:

예수의 탄생일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으나 에보디우스나 알렉산드로스,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기독교의 초기 주교들이 예수의 탄생일로 언급한 12월 25일을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로 기념하고 있으며, 예수의 희생은 성금요일로, 예수의 부활은 부활절로 기린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연호인 서력기원은 예수가 태어난 해로 추정되는 시점을 기원으로 하며,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은 기원전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1962년 1월 1일부터 서력기원을 사용하고 있다.

생애:

정경 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는 예수의 생애와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복음서만 예수의 생애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예수의 생애의 주요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1장 23~26절은 최후의 만찬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은 예수의 초기 사역과 세례자 요한이 그 사역을 예고했음을 언급한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11절은 정경 복음서보다 예수의 승천에 대해 더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복음서보다 먼

저 기록된 바울의 서신들, 특히 그 중에서도 바울의 저작임에 논쟁이 없는 서신들에서도 예수와 가르침이 여러 차례 인용된다.

초기 기독교의 일부 집단은 신약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별도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에는 토마의 복음서, 베드로의 복음서, 유다의 복음서, 야고보 비문 등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많은 신약 외경 문서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문서가 훨씬 나중에 작성되었으며, 정경 복음서보다 신뢰성이 낮은 기록이라고 결론짓는다.

복음서간 비교: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불린다. 이들 복음서는 내용, 이야기 전개, 언어, 문단 구조 등이 유사하여 여러 평행본문이 존재한다. 반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직접적인 문학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동의이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예수의 세례, 변모, 십자가형, 제자들과의 상호작용 등 주요 사건들을 공유하지만, 변모 사건이나 예수의 귀신 축출과 같은 일부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은 일부 사건의 서술 방식도 차이를 보인다.

마가복음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기적의 수행자로 묘사하며, 그의 가르침보다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섬기는 종으로 묘사된다. 마태복음서는 예수를 구약의 예언 성취자이자 교회의 주님으로 강조하며, 다윗의 자손, 왕, 그리고 메시아로 묘사한다. 유대 전통과 율법에 대한 연계성을 중요시하며, 구약 성경 인용이 많다. 누가복음은 예수를 신성과 인성을 지닌 구세주로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연민을 보이는 존재로 묘사한다. 그는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존재로 강조되며, 선한 사마리아인과 탕자의 비유와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요한 복음서 서문은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로고스, Logos)이 성육신한 존재로 묘사한다. 여기서 로고스로서 예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었고, 모든 창조에 관여했으며, 인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본성의 근원이 된 것으로 묘사된다. 예수는 단순히 과거의 인간 예언자들보다 위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예언자도 이를 능가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제시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공적으로 자신의 신적 역할을 드러내며,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 등으로 묘사된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예수의 생애를 절대적인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하거나, 당대의 세속적 역사와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요한 21장 25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 사건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기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복음서는 초기 기독교의 신학적 맥락에서 작성된 문서로, 시간적 순서나 정확한 연대기는 부차적인 요소였다. 이와 관련하여, 복음서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예수의 마지막 한 주, 즉 수난 사건(Passion)에 전체 텍스트의 약 3분의 1을 할애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복음서는 현대 역사가자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날짜나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예수의 생애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가능하다.

출생 시기:

'기원후'의 의미로 사용하는 'A.D.(Anno Domini)'는 예수 출생 이후 시대를 의미한다. 'B.C.'와 'A.D.' 구분은 6세기 경 신학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Dionysius Exiguus)가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면서 사용한 방법이 이후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에 반영된 것으로, 이때에 계산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연대 기준이 오늘날까지 쓰이지만, 예수가 태어난 해는 기원후 1년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한 갈릴래아 지방의 나자렛이라는 시골 출신이었으므로 그 출생에 관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드물다. 오늘날 복음서 기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일과 태어난 장소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대체로 예수가 기원전 2년에서 4년 경에 태어났다고 추정한다.

마태복음서 2장 1절부터 16절에는 예수가 태어난 해에 하늘에 '동방의 별'이 나타나고 헤로데 왕이 2세 미만의 갓난 사내아이들을 살해하도록 명을 내려 그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서 2장 1절과 2절에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하여 요셉이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을 찾는 내용이 실려 있다.

누가복음에 언급된 인구 조사는 기원전 4년 경에 이루어졌다는 견해와 기원후 6년 경에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상존한다. 누가는 누가복음서 2장 1절부터 7절에서 예수의 탄생 시점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당시 시리아 지방의 총독이 퀴리니우스(퀴리노, Quirinius)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퀴리니우스는 1764년에 로마에서 발견된 비문에 기원전의 퀴리니우스 총독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볼 때 기원전 4년 경 총독이었다는 것이 역사

적 사실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예수는 기원전 2년에서 4년 경에 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동방의 별'은 이후 '베들레헴의 별'로 알려졌다. 17세기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를 800년 주기로 목성과 토성이 분점에 대해 같은 위치에 놓이는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로부터 그 시기를 기원전 7년으로 추측하였다.

출생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는 누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베들레헴이지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자렛에서 성장하였다. 마가복음서와 요한의 복음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당시 사람들에게 '나자렛 예수'로 불리었던 이유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자렛에 있을 때 임신했으며, 베들레헴에서 출생 후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와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고 생활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의 출생 이야기는 오로지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의 구약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된 이유를 누가는 인구조사 때문에 예수의 가족이 고향 갈릴래아 지방의 나자렛이라는 마을을 떠나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방인 유다의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다. 그 까닭은 나자

렛의 요셉과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호구 등록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마태는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미가서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며, 이후 예수의 가족은 헤로데스 1세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흔히 헤로데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로데 1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자렛으로 돌아와 그 곳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는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마태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 설명을 한 것이므로 모두 일치된 기록이라는 해석이 보편적이다.

공생애 이전:

가게:

예수 가게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남아 있다. 두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예수는 나자렛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가게도로 보면, 예수의 아버지인 나자렛의 요셉은 목수였으며, 어

머니는 성모 마리아라 부르는 나자렛의 마리아였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는 세례자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과 친족 관계였다.(누가복음서 1:36) 예수의 잉태 및 탄생과 관련된 성서 기록을 보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고지받았다.(누가복음서 1:26-38) 이에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가 잉태된 사실을 고백하였다. 요셉은 신앙심 깊은 인물이었으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나 요셉은 꿈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게 되고, 마리아와 결혼하게 된다. 그 후 마리아는 예수를 출산하였다.(마태복음서 1:18-25)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는 예수의 육신적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마태복음서는 요셉의 선조를 아브라함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서는 심지어 아담까지 족보를 까마득히 펼치고 있다. 두 복음서는 여기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마태는 다윗에서 요셉까지 28대를 손꼽고 있는 반면 누가는 요셉이 다윗의 42대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두 족보가 다른 이유는 마태와 누가의 복음사가가 각각 요셉과 마리아의 가계도를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고대교회의 신학을 형성한 교부들도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라 말하였고 교회의 전승 또한 이와 일치한다.

가족:

예수에게 성모 마리아와 요셉 이외 다른 가족이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에 관한 신학적 차이가 존재한다.

현대 개신교 신약성서학에서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부정하는 추세로, 예수 형제들을 예수 탄생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 태어난 예수 친동생으로 해석한다. 그 근거는 누가의 복음서 2장 7절에 있는 "그녀의 맏아들"이라는 기록이나 마태복음서 1장 25절에 "그녀가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 마태복음서 13장 55절과 56절에서 예수 형제들 이름과 예수 누이들 존재를 거론한 장면이다.

반면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믿는 동방 정교회와 천주교회, 오리엔트 정교회와 일부 성공회 고교회파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형제들을 친척형제 또는 사촌 형제들이라 해석한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형제라 함은 사촌 형제를 아우르는 말로 쓰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가 그의 홀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을 떠올려 봐도 예수의 형제들을 '친형제들'로 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독교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나 요셉, 시몬, 유다가 예수의 친동생들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 이외의 친자녀가 더 있었다면, 요한복음서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가 친족들 앞에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길 까닭이 없다. 예수의 어머니에게 예수 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사랑한 제자에게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란 해석은 자연스럽다.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예수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려는 복음사가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 있는 누가복음서의 몇 구절이 조금이나마 예수의 어린 시절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예수의 12세 때 유대인들의 해방 기념일인 과월절을 지키려고 부모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부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방황하면서 아이를 찾았다고 한다. 예수를 찾은 지 사흘 뒤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만났을 때, 예수는 유대교의 랍비, 곧 율법교사들과 율법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겼다고 했다. 이에 부모가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묻자, 예수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라고 답했는데, 이는 예수가 자신과 온 인류의 아버지를 야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누가복

음 2:41-51)

그 뒤에 계속 나자렛에서 자란 예수는 요셉의 직업을 이어 목수 일을 배우며 자랐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엔도 슈사쿠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목수는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노동자였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예수가 자신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회당예배 때에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여 자신이 고난받는 민중들과 연대하는 메시아로서 살아갈 것임을 알리는 설교를 하자, 고향사람들이 지혜에는 감탄했지만 '저 사람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 아닌가.'라며 예수가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임을 지적하였다는 누가 복음서의 보도(누가복음 4:16-22)는 목수라는 직업이 변변치 않은 직업이었을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예수의 유년시절에 대해 누가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2:52) 간단하게 적고 있다..

세례자 요한:

예수는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나자렛을 떠나 출가하였다. 그 이후에 당시 먼저 광야의 외치는 소리로 먼저 광야로 나가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에게로 나아갔다. 예수를 본 세례자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받으러 오셨

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를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를 바라셨고 마침내 세례를 받았다. 물 속에서 세례를 받은 뒤에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였다. 예수의 세례 장면에 대한 성서의 언급을 선지자 요한을 추종하는 종교와 기독교 사이의 투쟁에서의 우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신학자들도 있지만, 교회력을 신앙 전통으로 지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 날을 '주님의 세례주일'로 기념한다.

고행과 유혹: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뒤에 홀로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한 뒤 높은 곳에 올라가 마귀에게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첫 번째 시험: 돌들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예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였다.

두 번째 시험: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게 유

혹하는 것이었다. 사탄은 이번에는 특이하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는 시편의 구절을 들어 그를 설득하려 했으나, 예수는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로 사탄의 유혹을 꺾었다.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네게 주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예수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성경 구절을 들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사탄은 떠났고 천사들이 날아와 그를 도왔지만 사탄의 유혹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어서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신약성경 학자들은 유혹을 고난의 그리스도가 아닌 영광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는 유혹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유혹의 내용들이 모두 명예욕을 채울 수 있는 조건들이었기에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는 유혹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공생애:

기적: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가 처음 행한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혼인 잔치에 갔다가 예수와 제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생겼다. 이를 안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에게 이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일렀고, 예수는 하인들에게 여섯 개의 항아리에 물을 붓게 했다.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모든 물을 가져오자, 예수는 잔치를 맡은 이에게 그대로 갖다 주게 했는데,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된다.(요한 2:1-11)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예수는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기독교에서 포도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예수가 말한 "때"와 "포도주"의 관계는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제물로 희생될 때 흘린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풀이한다.

산상수훈:

예수께서는 초기에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모이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이들에게 설교하였다. 이 산은 갈릴래아 호수 북쪽 타브가와 가파르나움 사이에 있는 한 야산이

었다고 전해져 온다. 이를 담은 내용이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 내용은 마태복음 5:3-12, 즉 팔복 부분으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

— 누가복음 6장 20-26절, 공동번역성서

이 밖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은밀히 구제하며 비판받지 아니하거
늘 비판하지 말라는 등 파격적인 내용과 더불어 현재까지 기독교
에서 사용되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인 주님의 기
도(주기도문)가 소개된다

기적:

복음서에는 예수가 수많은 병을 고쳤다는 기적 이야기들이 있는
데, 그 까닭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변증하고자 하는 복음서 저자들
의 신학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병들을 고친 사건은 단순
한 기적이 아닌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한 자기 증명인 것이다.
일례로 예수가 병을 고치는 그 깊이는 다른 의사들의 차원, 심지
어는 인간의 차원이 아니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하혈병으로
고통받은 부인을 고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부인이 12년 간 병으
로 고통받았지만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군중 속에는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

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여 따라
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
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예수께
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군
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가복음 5:25-30절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로마제국의 제국주의적 통치 즉, 로
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의 유지를 위해 식민지에서 실시한 폭력적
인 통치와 경제적 착취로 인해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이야기들을 보도함으로
써 예수를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의 치유자로도 묘사한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
리셨을 때에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
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
도 그를 매어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쇠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
고 쇠고랑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찧곤 하였다.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큰소리로 외쳤다.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수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걸하였다. 마침 그 곳 산기슭에는 놓아 기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악령들은 예수께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악령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 치던 사람들은 읍내와 촌락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돼지 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게 들려주자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 만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일을 해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 하고 이르셨다" 마가복음 5:1-19절.

율법학자들과의 논쟁:

복음사가 누가에 의하면 예수는 이미 12살 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리스도는 율법학자와 토론을 벌였는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전승도 율법학자와의 토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어느 율법학자가 그리스도에게 "진짜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예수는 예시를 들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를 보고도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간호하고 여관에 맡겨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달라고 부탁하여 보살폈다"는 비유를 말한다. 그러면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고 묻자 율법학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루살렘 입성과 마지막 만찬: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제자들

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는 민중들의 환대를 받는데, 이는 예수를 정치적 혁명가로 생각해서였다. 실제로 성경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겹옷을 벗어 길에 펴 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놓기도 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뭇가지는 당시 유대교 종교 권력의 횡포로 소작농으로 전락한 이들이 재배하던 종려나무의 가지였다. 하지만 예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죽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떼어 감사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죽음이 뜻하는 바를 설명하였다. 이를 그리스도의 성체제정이라고 하는데, 성공회, 정교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체성사, 성찬례, 성체성혈성사,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성사를 성직자가 집전하여 예수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념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자신들에 대해 비판적인 예수를 위험 인물로 본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은 이스카리옷 유다와 결탁하여 그를 체포하였다. 예수는 가리옷 사람 유다가 자신을 유다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한 내막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

래서 최후의 만찬 때 자신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었다. 체포된 예수는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의회에서의 재판을 거쳐 본티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서는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여 풀어주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의 압력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누가복음 23:14-25)

하지만, 빌라도의 총독으로서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를 그의 의지에 따라 십자가형에 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혔을 때, 그의 십자가에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민족 지도자를 뜻하는 '유대인의 왕(INRI)'라는 죄패가 달렸으며 예수를 처형한 세력은 로마 제국의 공권력이었다. 더구나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를 받을 만큼 민중들에게 지지받는 명사였으므로 빌라도에게 그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다시 말해 누가는 교회가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지지했으나 마지 못해 십자가형에 처한 것처럼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일부 시각도 있다. 반면에 빌라도에 대한 마이어의 연구를 보면, 당시 본티오 빌라도의 보호자 즉 후원자는 세야누스 였는데, 그는 황제에 대한 반역 음모를 꾸미다가 A.D. 31년 권력에서 물러났다. 그리하여 빌라도의 지위는 A.D. 33년 경에는 매우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시기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혔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시의 유대인을 분노케 함으로써 황제와의 관계가 더 이상 곤경에 빠지지 않길 원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복음서의 묘사가 가장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예수는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잔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며 구타와 조리돌림을 당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십자가 모양의 형틀이 아닌 가로대를 가리킨다. 처형장에 끌려가는 도중 예수가 모진 구타 끝에 체력이 다하여 쓰러지자 쿼레네 출신의 시몬이 예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1.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셨다.'

2. '예수께서는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3.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

씀하셨다. 이 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4. '세 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5.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6.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7. '예수께서는 큰소리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

죽음 이후:

기독교 경전인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혀 장사되신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12제자를 축복하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으며 아래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기록이다

비기독교계 사료:

역사가 타키투스는 110년경에 쓴 《연대기》(Annalia) 15권 44

장 2절에서 64년 7월 19일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나자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하고 박해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 내용을 기술하면서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타키투스는 이를 라틴어: Chrestiani로 기록하였다.)의 이름의 기원을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때 폰티우스 필라투스(본티오 빌라도) 행정관(본티오 빌라도는 흔히 총독이라고 불리지만, 팔레스타인은 총독이 아닌 행정관이 다스리는 속령이었다.)에게 처형된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이 사악한 미신'은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비티니아의 총독으로 재직 중이던 소 플리니우스는 112년경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티니아 지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신처럼 여기면서 성가를 불렀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전기 작가인 수에토니우스는 120년경 《황제들의 생애》(De vita caesarum)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의 한 부분인 〈클라우디우스의 생애〉 편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에 크레스투스의 사주로 인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크레스투스가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 참고로 수에토니우스가 말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누가에 의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고린토로 이주한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

리스길라가 자신들처럼 천막 제작 노동자인 바울과 같이 일했다고 한다.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 독립군 사령관으로 있다가 전세가 기울자 로마군에 투항한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서기 75년경 작)에서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를 돌로 치는 형벌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유대교의 《탈무드》〈산헤드린〉에는 예수는 마술을 써서 이스라엘을 미혹시켜 배교하게 하였으므로 유월절 전날에 처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태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가 복음서	요한 복음서
비어있는 무덤 (28장 1-7ㄹ)	비어있는 무덤 (16장 1-7ㄹ)	비어있는 무덤 (24장 1-7ㄹ)	비어있는 무덤 (20장 1-10ㄹ)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28장 9-10ㄹ)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16장 9ㄹ)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20장 11-18ㄹ)
	예수께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16장 12ㄹ)	예수께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24장 13-31ㄹ)	
예수께서 열 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28장 16-20ㄹ)	예수께서 열 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16장 14-18ㄹ)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24장 36-50ㄹ)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20장 19-31ㄹ);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심 (21장 1-22ㄹ)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 (16장 19ㄹ)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심 (24장 51ㄹ)	
사도행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심 (1장 3ㄹ)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머무시며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심 (1장 4-5ㄹ)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 (1장 8ㄹ)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심(1장 9ㄹ)

1세기 종교운동:

학자들은 1세기초의 종교적 배경을 예수의 삶에 대해 재조명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바리새파는 1세기 유대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었다. 마태 복음서에 따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2차 성전 건축 이후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 지파 후손들로 70년 로마-유대 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대교 유파로 성전 없는 유대교를 시작하였다.

사두개파는 특히 예루살렘에서 강력했다. 그들은 모세5경만을 인정하였으며, 이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사후세계에서의 징벌, 신체의 부활, 천사나 영혼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으로 귀족은 신분을 유지했고, 로마제국에 협력하여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으며, 정치사상에서는 당연히 보수주의자들이었다. 70년 예루살렘 함락으로 성전 파괴 이후 살아남은 이들은 바리새파에 흡수되었다.

에세네파는 2차 성전 건축 이후 쫓겨난 진보적 레위지파 후손이었다. 성전에 바리새파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한 곳으로 여긴 진보적인 유대교 유파였다. 이들은 수도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이들이었다. 금욕적 종말론자들로 신약성서

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젤롯파(열심당)의 소개로 간접적으로 등장한다. 젤롯파가 급진적인 에세네파의 공동체였다. 반로마 제국 입장으로 인해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로마군에 의해 철저히 제거되었다

